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월 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5일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. 3.(금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담당과장	이희원 과장(044-203-5270)	담 당 자	송기환 사무관(044-203-5274)

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, "국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"

- 선진 가스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 12개과제 추진 -

❶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

○ **(서민층 안전복지)** 서민층 안전 확대를 위해 노후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 교체 확대,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보급 지원, 도서지역 내 미사용 액화천연가스 용기 공동보관실 설치

○ **(액화석유가스 소형탱크·부탄캔)** 생활주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의 안전장치 의무화 추진

○ **(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)**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가스보일러 설치시 경보기 의무화* 및 업계와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상시 안전점검체계 구축

*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('18.12.18) : 사망 3명, 부상 7명

❷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('19.12.26,「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」기반영)

○ **(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관리)** 수소법 제정을 통해 생산-운송-저장-활용 등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

○ **(전담기구 설치 및 안전기술 개발)** 가스안전공사 내에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하고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개발

○ **(부품 국산화 및 상용화)** 수소 제품과 부품을 시험·평가하는 가늠터(Test Bed)로서 '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'를 건립하고 제품 국산화도 병행 지원

❸ 3大 핵심 시설 관리체계 고도화

○ **(도시가스 배관)**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등을 마련하고, 정밀안전진단 확대 시행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

○ **(대형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)** 15년 이상 대형 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를 의무화하고,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및 투자 계획을 수립, 산업부는 이행·점검

○ **(산업용 가스 설비)** 압력용기 등 산업용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의무화하고, 연구소 등의 방치용기 회수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

❹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

○ **(맞춤형 정보 제공)** 해빙기, 여름철, 설·연휴기간 등 시기 및 장소에 맞는 실생활 맞춤형 안전정보 홍보

○ **(정보공개 및 데이터 관리)**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 공개 및 사고 빅데이터 관리를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

○ **(가스안전체험관)** 가스안전체험관을 구축하여 이용자편의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적 오류사고 예방

[『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』의 배경 및 의미]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'20.1.3(금)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」을 확정하고,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.

○ 이번 기본계획은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·난방용에서 산업·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,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.

* '19.1월부터 전문가 작업반(워킹그룹) 구성·운영, 액화석유가스·도시가스·보일러 업계 등의 의견 수렴,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

□ 산업부는 이번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가스보일러, 부탄캔, 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탱크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,

○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하고,

○ 장기사용 가스배관, 대형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,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다.

□ 지난 5년간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고* 있으나

*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추이 : ('09~'13) 201.2명/년 → ('14~'18)125.4명/년

○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.

[동 대책의 주요내용]

❶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

□ **(일산화탄소 중독 예방)**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숙박시설,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.

○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,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**(서민층 안전복지)** 그간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*을 확대**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.

* 보급현황(~'18년) : 가스관 교체 59.6만 가구, 타이머콕 설치 57.3만 개소
* 현재) 기초수급자, 노인 등 → 개선)일반 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(지자체, 가스업계 협조)

○ 또한,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안전 관리가 부실한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하는 공동용기보관실 시범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.

□ **(액화석유가스 소형탱크)** 최근 들어 주택, 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소형탱크(3톤 미만)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고

○ 가스누출 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'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.

○ 또한,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*을 의무화하여 파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.

* '21년까지 캔 제조사별 안전장치 장착 비율을 매년 확대 예정(시범운영)

❷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('19.12.26「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」기반영)

□ **(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관리)**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('19.12월 본회의 계류)하여 생산-운송-저장-활용 등 수소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.

○ 수소법 제정이후 시행 전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, 업계와 협력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.

□ **(전담기구 설치)**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, 안전인력양성, 안전기술개발,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.

○ **(안전기술 개발)** 수소 생산・운송・저장・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* 핵심기술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

(예) ① 충전 압력・온도・유량 등에 관한 '충전표준(Protocol) 개발'
② 주요설비의 고장・진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'충전소 안전관리 모니터링' 등

□ **(실증·인증 지원)**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・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*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

*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(대전, 18.12월~ '21.11월, 총사업비 210억)

○ 수소 부품의 인증확대에 대비, 인증기관*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.

*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(영월 소재, '16.10월 준공) : 충전소 밸브(유량,차단,수동) 인증기관

❸ 3대 핵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

□ **(도시가스 배관)**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 시행(국토부, '20.1월)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에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.

○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·보수를 추진하며,

○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 및 시설 개보수의 투자계획을 수립·이행토록 하고, 산업부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투자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**(대형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)** 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개방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(4.5만 ㎘ 이상 86기)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.

○ 기반시설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, 이에 준하여 저장탱크의 안전등급 및 개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**(산업용 가스)** 현행 암모니아,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(CRM) 9종 외에 모노실란(SiH4), 불소(F2)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하고,

○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(용기, 압력조정기 등 포함)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하여 안전인증을 의무화하며,

○ 연구소 등에 사용 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 처리시설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.

❹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

□ **(맞춤형 안전정보 제공)** 해빙기(지반침하 우려)에는 공사장 인근에서, 여름철에는 수해지역에서, 동절기에는 난방기 자체점검방법을, 명절기간에는 고속터미널 등에서 부탄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기별·장소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

○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국어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자율안전 관리 행동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.

□ **(안전검사 정보 공개)**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.

□ **(가스체험관 구축)** 취급부주의 등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체험관을 구축하고 체험 위주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마련하여 어린이, 노인, 주부 등 안전에 취약한 사용자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별첨 :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송기환 사무관(☎ 044-203-52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